박람회 개최로 축산 부국 정보제공 기회 삼아…

◇취재 / 김용화(본지 편집장)

유럽은 북미 면적의 22%이며, 인구는 약 5억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밀도는 북미가 ㎢당 19명인데 반해 유럽은 아시아와 비슷한 100명 정도이다. 매 2년마다 EuroTier국제축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인구 약 8천만명에 남한 면적의 약 3배정도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축산물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기도 하다. 육류 생산에 있어 세계 5위권에 진입해 있으며, 수출규모로는 세계 1위로 약 90만톤 정도이며, 수입도 세계 6위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약 30만톤을 유지하고 있는 축산 부국이라고 보여진다.

이번에 개최된 EuroTier2000은 지난 1998년도 행사 규모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2000. 11. 28(화)~12. 1(금)까지 4일간이었다. 개최 장소인 하노버시는 독일의 12대 도시권에 속하며, 인구는 약 50만명 정도이다. 전시회 주최는 독일 농업 협회〈German Agricultural Society(DLG)〉가 전담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별 전시 업체 현황은 네덜란드 119개사, 이탈리아 55개사, 프랑스 49개사, 덴마크 41개사, 벨기에 25개사, 영국 25개사, 미국 24개사, 스페인 23개사 등 총 33개국에서 약 400개사에 이르는 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독일 국내업체 700개사를 포함하여 총 1,100업체가 출품을 하였다. 전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의 수준을 보였는데, 총 면적이 114,000㎡(35,625坪)에 달해 우리나라 1999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10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박람회가 개최된 하노버(Hannover)는 작센 지방의 주도시로 북부독일에 속하며, 지형적으로는 저지대에 속해 해발 58~106m의 산지이다. 아름답고 중요한 많은 건축물들로

△ EuroTier20000| 열린 독일 하노버 박람회장 전경

차있는 도시로 2차 대전 중 시내는 물론 주택지역과 공업지역의 약 90% 정도가 완파되었으나, 전후에 도시를 재건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원하여 새로 지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공기도 매우 맑고 신선한 감을 풍기는 대도시의 모습 뿐 아니라 소박한 시골풍경으로까지 비춰질 정도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노버는 독일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 울 만큼 지리적 여건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현재 산업, 교역과 경제, 그리고 박람회의 중심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노버 뿐만 아니라 독일은 박람회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이다. 약 150개에 이르는 국제적인 전문 박람회 중 약 2/3가 독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유럽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하여 소고기의 경우 60% 이상의 소비가 감소하여 일대 축산업이 붕괴될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당시였으나,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나 참관객들은 여느 때에 같이 평온한 느낌을 줄 정도로 차분하게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위기 대처에 있어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소비자들을 최대한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모습에서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대조적인 상황을 비교케 하였다. 방문 당시(2000. 11월 28일) 광우병에 관한한 완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농림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여 공식 발표되던 날 부로 해임되는 소식도 현지에서 접하였다.

어쨌든 EuroTier2000은 축종별로 전시장을 구분하여 전시하였기 때문에 참관객들이 쉽게 자기가 참관하고자 하는 전시장으로 이동하게 끔 하였다. 이 전시회는 축산분야 사람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무료입장이 아닌 유료입장으로 입장료 수입도 상당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1일 입장

권은 30마르크(한화 약 15,680원)였는데 1일 20매시 구입시에는 22DM로 17%를 할인해 주었으며, 4일권을 구입하면 50DM(10장 이상 구매시 45DM)였고, 학생, 또는 연금수령자가 입장하면 20DM(34% 할인)이고, 12세 이하가 성인을 동반하여 입장하면 무료이고, 또한 동 박람회를 주최하고 있는 독일 농업협회 회원은 사전에 입장권을 배포하여 무료로 입장케 하였다.

한가지 색다른 것은 이 박람회에는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첨가제와 축산물 가공용 또는 포장 기기는 거의 출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의 전시회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첨가제와 축산물 가공용 또는 포장 기기들이 출품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느 전시회와는 대조적인 면이었다. 주종을 이루는 전시품목은 종축이 강세를 보여 유럽 축산이 종축의 종주국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하였으며, 주로 시설에 관련되는 전시품들이 근간을 이루었다.

전시장에 참가한 업체들도 유료로 입장을 하는 참관객이 모두가 고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부스를 모두가 아담한 호프집과 같이 인테리어로 처리하여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였고, 대개의 경우 어떤 부스를 방문하여도 독일답게 맥주를 대접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참관객이 많아 축산과 관련된 시설기자재의 출품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들의 양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우리나름대로의 박람회 운용이 절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예로 소비자 홍보가 필요한 업체와 양축가 상담 위주의 업체를 신청 받을 때에 면밀하게 구분하여 전시장을 일부 구획화 하는 방법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이다.

필자가 이번에 하노버 EuroTier2000에 파견된 것은 물론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개최 홍보를 위해서였다. 영문 300매와 간단한 기념품을 들고 지정된 부스도 없이 이곳 저곳을 돌며 (마치 집시처럼) 일일이 박람회 홍보를 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미 VIV2001유럽(네덜란드 유트렉트) 전시회나 태국 전시회는 조직위원회에서 부스를 임대하여 홍보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 전시장 내부 광경

의 추진위원회도 좀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동 박람회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일간의 박람회장 업무를 마치고 귀국 전에 독일의 몇몇 도시와 체코의 프라하를 관광할 기회가 생겼다. 이를 통하여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분단과 함께 통일 독일을 맞이한 독일인들의 저력과 문화를 잠시나마 살펴보면서 부러움 이전에 우리도 독일처럼 분단과 통일이라는 거창한 국가적 대업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축산업 면에서 수입이 증가한다고 위축된 마음으로 농장을 경영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수입과 수출의 공존을 이용하여 발전 지향적인 한국 축산업의 자리 메김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독일 관광시 안내원이 알려준 독일통일에 관하여 들려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 본 박람회에 참석한 시찰단

"독일은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국민들이 검소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몇 일이 채 안 돼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국민성을 토대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2위의 무역국을 건설해오지 않았나 보여진다. 독일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회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국가가 제시한 경제의 커다란 틀 안에서 경쟁의 원칙이 작동하고, 이를 통해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서비스 관계가 이루어지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협정과 조약은 카르텔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경제의 중추는 공업분야다. 특히 자동차, 기계 및 플랜트 제조, 화학산업, 전기 및 전자산업, 섬유산업, 정밀기계산업, 광학산업, 환경보전 관련 산업이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농업도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때에는 아주 발전하였으나, 농업보다는 공업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1944년 9월 22일 2차 세계 대전 후 Morgenthau-Plan에 따라 전쟁 재발을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세계열강들이 독일을 농업국으로 만든다는 틀을 짜서 농업에 대한 투자에 힘을 쏟게 한 것도 어찌 보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소의 영향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현재 독일의 농업종사자는 약55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1997년 약 50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수출되었다. 가장 큰 대외시장은 유럽, 일본, 미국이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다임러-벤츠, BMW, 포르쉐, 오펠 등 자동차는 세계 수준에 있다. 최근 유가인상과 공해문제로 개발이 촉진되는 저연비 차가 관심을 끄는데, 경제 속도에서 3*l*로 100㎞를 주행할 수 있는 폴크스바겐 승용차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 2001 한국국제축산 박람회 홍보를 위해 홍보전단을 전달하는 필자

알타회담으로 인하여 4등분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다. 서방 3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의미로 분할지를 통합하였다. 이후 1949년 9월에 서독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어 10월에 동독에서도 독일민주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서독은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부흥이 시작되었다. 1961년 8월 13일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주민의 수가 1960년말 300만에 달하자 소련의 후루시초프는 동서베를린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1969년 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하고 본격적인 동방정책이 시작되어 정부의 기본입장인 "서독이 독일의 유일한 국가"라는 입장에서 동독을 인정함으로써, 긴장완화에 주력하여 동서독간의 왕래가 활기를 띠었다.

헬무트쉬미트가 수상에 취임하면서 1978년 베르린-함브르크 간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35억마르크를 지원하였고, 1981년에는 쉬미트가 동독을 방문하여 동독국가수반인 호네커를 만나는 계기를 만들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82년 10월 헬무트콜이 수상에 취임하자 1983년 서베를린 시장이 동베를린에 가서 호네커를 만났고, 1984년 35,000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입국을 신청하였고, 동독정부의 기반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86년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제네바에서 만나 국비축소에 합의하고 나자 냉전체제는 점차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말았다. 1988년 동베를린에서는 공산정권에 반대한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약 120명이 체포되어 그들의 석방을 위한 예배에 약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된 것이다."

분명히 독일은 우리와는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이 많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 통일문제건, 축산업의 부흥이건 간에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본받아 우리 것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양계